

충주에 참선 전문도량 우뚝



5월 15일 낙성법회를 봉행하는 충주 석종사 대웅전.

출·재가자의 수행을 위한 참선 전문도량이 충주시 지동에 들어선다. 석종사(주지 성담)는 5월 15일 대웅전을 비롯한 9개 전각의 낙성법회를 봉행, 본격적인 참선수행 확산과 포교에 나선다. 석종사의 총 부지는 10만여

평. 이곳에 대웅전 오회각 조실채 소소원 해명원 감로각 금불암 등 9개의 전각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건축은 봉암사 등에서 대웅전 불사를 담당했던 김범식씨가 맡았고 인간문화재 석정스님, 청원스님이 단청과 탕화, 불상을 조성했다. 석종사 스님

30여 명도 직접 포크레인을 운전하며 불사에 참여했다. 석종사는 이날 낙성식과 더불어 스님 선방인 금봉선원과 재가자 수행처인 보살선원의 공사를 시작한다. 선원이 내년 가을 완공되면 해국 스님이 직접 참선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석종사가 들어선 장소는 신라 시대 대가람인 죽정사가 위치했던 곳으로, 조선 시대 충주 관아 공사를 위해 파괴된 후 방치돼 있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해국 스님은 20년 전부터 토지를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 10만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3년 전부터 대웅전, 요사채 등 불사를

사 불사의 특징은 화엄변상도에 따라 법당을 건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 불국사처럼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전각 배치, 법당 간 처마길이, 지붕 높이 조절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주지 성담 스님도 "짜임새 있는 석종사 불사를 보고, 문화재

석종사, 화엄변상도 따른 가람 배치 선원 완공되면 해국 스님 직접지도 인간문화재들이 불상·단청 맡아

추진했다. 충청불교계는, 불교수행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참선 전문도량 석종사가 낙성됨으로써 지역 불교가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 스님(전국선원장회의 의장)은 "석종

창이 근래에 지어진 사찰 건축의 교과서로 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정도"라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수행 환경을 갖추어 한국 불교를 이끌 도인을 탄생시킬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043)854-4505 **충주=강유신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서울 북한산 심곡암

산사 문화포교 선두주자



일 년에 두 차례씩 '산사음악회'라는 문화포교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북한산 심곡암은 오는 5월 16일 열리는 '제5회 산꽃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봄꽃이 만발한 북한산 형제봉 심곡암(주지 원경, www.simgokam.org). 주지 스님과 신도들은 요즘 5월 16일 열리는 산사음악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북한산을 배경으로 발 아래 서울 도심이 펼쳐지는 심곡암의 입지조건은 '가깝지만 깊은' 산사의 느낌을 그대로 전해준다. 심곡암 마당에 넓적하게 자리 잡고 있는 너럭바위도 산사음악회 무대로 쓰여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관람객들이 문화공연을 즐기며 자연스레 불교를 접하게 돼 신도도 나날이 들어갔다. 처음 200~300부 정도 발행하던 심곡암 소식지 '심곡'은 이제 2천부 정도로 부수가 늘었다.

출연 가수나 무용단 섭외는 4~5개월 전 주지 원경 스님이 끝냈고 안내장도 이미 발송을 마친 상태. 하지만 매년 1천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행사를 준비하는 일은 만만치가 않다. 현재 심곡암 다도회원들은 육법공양과 생활다례 시연 마무리에, 중무소 직원들은 음악회와 전시회 순서를 점검하고 그날 스레 사람이 쓰일 물품을 빼놓지 않고 준비하느라

"자연의 아름다움은 인간에게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공감대를 심어준다. 여기에 문화공원이 더해지면 자연경관 그날 스레 사람이 쓰일 물품을 빼놓지 않고 준비하느라

매년 5월 음악회 등 열린 공간 휴식·수행 겸한 수련원 계획

산사음악회의 선두주자인 심곡암의 봄 산꽃축제는 올해로 5회째를, 가을 단풍축제는 7회째를 맞게 됐다. 지난 1996년 심곡암 주지를 맡게 된 원경 스님이 봄이면 개나리와 산벚꽃, 라일락, 철쭉 등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드는 이곳의 자연을 '흔사 즐기기 아까워' 97년 가을부터 산사음악회를 열기 시작한 것이다. "도심 속에서 공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불심(佛心)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산사음악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심곡암 산사음악회 마니아들도 생겨 봄, 가을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연을 즐기다보면 굳이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을 열어 법향을 느끼게 됩니다." 심곡암이 마련하고 있는 또 다른 포교의 장은 바로 문수선 수련원. 원경 스님은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을 일반인들이 묵으며 자연을 즐기고 수행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사람이 잠시 구경만 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오래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수행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수련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올 가을 문을 열게 될 수련원은 휴식과 수행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02)914-8860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톡톡 튀는 프로그램 지역민에 '쏙'

부산 화명복지관 7일 개관 가족상담·키드런 등 서비스

톡톡 튀는 프로그램과 최신 시설을 갖춘 화명복지관(관장 유정)이 5월 7일 부산 화명동에 개원했다.

가족문제상담실, 장애아동통합치료실, 임신부 워트니스, 아동용 인성·신체발달 지원 프로그램 '키드런', 모두 지역민 육구 증진을 위한 사전조사 끝에 마련한 프로그램들이다.

화명복지관은 부산에서 처음 실시되는 '키드런'을 비롯 장애아동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장애아동통합치료실 등으로 복지사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사업단을 구성, 장애 절차 정보와 장애절차 일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구상중이다.

화명복지관은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 외에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 어학실과 20대의 컴퓨터를 갖춘 전산실 등은 오감을 자극하는 전문 교육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도실에서 다도, 명상, 요가도 실시한다. 특히 초·중·고 교가 많은 점에 착

안, 학교사회사업도 추진 중이다. 주 1~2회 학교 상담실 운영, 청소년 아동 집단상담, 프래그먼트 교육 후 활동 등 청소년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7일 열린 개관식에서 유정 관장은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한발 앞서 지역민들을 기다리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와 너가 돌아 아닌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진정한 복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051)338-2233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제18회 선택여왕 송모제

선택여왕 송모제(회장 최태향)는 불교를 숭상한 선택여왕의 뜻과 공덕을 기리기 위해 '제18회 선택여왕 송모제'를 5월 3일 팔공산 부인사에서 봉행했다.

현공의식, 송모제, 법어, 축사 순으로 이어진 송모제는 동화사 부주지 보의 스님, 부인사 주지 성담 스님, 조해영 대구시장 등 사부대중 5백여 명이 동참했다.

선택여왕 송모제는 성담 스님이 매년 음력 삼월보름날 봉행해왔다. **배지선 기자**

남천다회 다신제 봉행 초의선사 제다법 시연



스님을 중심으로 국내 처음 유가농 차 작목반을 결성해 순수 우리 차 보급에 나선 남천다회가 다신제를 봉행했다.(사진)

해남 차 작목반 남천다회(지도부사 여연스님·일지암 주지)는 5월 5일 북일면 차밭에서 행차가 나왔음을 하늘에 고하는 헌다를 하고 차를 시음했다.

헌다에 앞서 여연 스님은 환영사에서 "차를 통해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자 고민하던 중 해남의 청년들과 함께 차밭을 일구어 본격적으로 차를 생산하게 됐다"며 "동다송과 다신전에 근거한 순수 우리차를 보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년 전부터 '순두유 찜통차'를 일반에 선보이고 있는 남천다회는 토양검증, 무농약, 무화학 비료, 일 성분검사로 우리 차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이준엽 기자**

약천사 국태민안 수륙대제



부산 약천사(주지 법인)가 주최하고 부산경남 서부불교지도자협의회(회장 종원)가 후원한 국태민안과 국경발전 및 무주고혼을 위한 수륙대제가 5월 3일 부산 사하구 수협공판장에서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사진)

약천사 주지 법인 스님은 대회를 통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발원하며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낙동복지관 개관 5주년

낙동복지관(관장 임광수)의 개관 5주년 기념행사가 30일 국제신문 4층 중강당에서 열렸다. 부산불교사회복지관협의회 회장 해충 스님, 부산시 강서구 안병태 구청장, 한국복지관협의회 구형수 회장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개관 5주년 기념식과 함께 위탁대 정교실장 덕일 정사의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천미희 기자**

Waitakere City Council
Civic Centre
6 Waipareira Ave
Waitakere City

Private Bag 93109
Henderson
Waitakere City

26/04/2004

International Buddhist Meditation Temple of New Zealand
631 Huia Road
Huia
Waitakere

**CERTIFICATION OF APPROVAL FOR 631 HUIA ROAD, PARAU
INTERNATIONAL BUDDHIST MEDITATION TEMPLE OF NEW ZEALAND**

This letter is to certify that approval has been granted to the International Buddhist Meditation Temple of New Zealand to utilise the property at 631 Huia Road, Parau, for the purposes of a religious temple and associated religious activities, including meditation, bible classes, counselling, prayer services, religious services, weddings, funerals and birth ceremonies, subject to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approved resource consent RMA 20031777.

If you have any queries regarding the above, please contact Hamish Anderson of Consent Services (phone (09) 836-8000 Ext 8644).

Yours faithfully

Hamish Anderson
Senior Planner on behalf of Waitakere City Council

경

축

뉴질랜드 환희정사

종교(불교사찰) 관련 일체 법률허가 취득 및 불교 성지 지정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환희정사는 그동안 여러 해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인근 일부 현지 주민들의 거둔된 비불교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2004년 4월 15일 본 사찰 관련내용 법안 통과 건으로 뉴질랜드 waitakere 시의회에서 최종 Hearing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불교)로서 종교 사찰허가, 종교목적 대지, 종교 부속건물 및 일체 종교 활동의 법률적 허가를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국가법에 의한 종교로서의 법률적 권한을 획득하여 (RMA20031777) 뉴질랜드의 종교(불교사찰)관련 법률허가 취득 및 불교 성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한국 불교의 이 자랑스러운 기쁨을 한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사찰명** : International Buddhist Meditation Temple of New Zealand (환희정사: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티터랑지 소재)
▶ **사찰 종교목적 허가 대지 면적** : 16,746평
▶ **사찰주소** : 631 Huia Road, Parau, Auckland, New Zealand TEL : (64)-9-817-3450, FAX : 64-9-817-3453

● **불교성지 지정 의미 해설**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종교 활동을 할 때 현지 지방정부에 Non Profit Corporation 등록을 하며,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현지 지방정부에 Incorporated Charitable Trust 등록을 중앙정부 상무부에 함으로써 출납합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종교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간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등록은 그 단계가 종교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종교로서의 권리 권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별도 종교건물허가 종교용지, 종교부속건물, 종교활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에 의하여 엄정한 심사를 필한 후 이러한 허가를 취득하면 종교로서의 절대적 권한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웃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해당 정부관서의 우려로 인하여 해외 포교활동시 이러한 법률상 허가를 취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한국 사찰이나 교회들이 법률상의 종교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단순한 비영리 단체 등록만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지의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환희정사 신도회

631 Huia Road, Parau, Auckland, New Zealand TEL : (64)-9-817-3450, FAX : 64-9-817-3453